" 여행일정은 마음여행 사이트로 오세요 "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인도/부탄/동티벳/수미산/미얀마/중국
WWW.마음여행.COM ☎ (02) 720-9600

불교신문

1960년 1월 1일 창간 주2회 발행 제3268호 대표전화 (02)730-4488 ibulgyo.com (2017년 / 단기 4350년 음력 12월28일) 불기 2561년 1월 25일 수요일

개량메주
고추장, 된장, 간장 집에서도 쉽게 담글 수 있습니다.
사먹는 제품의 절반 가격·입맛에 따라 곡물 첨가 가능·기성제품과 다른 전통장 맛·자매품 청국장가루 · 미숫가루
(02)713-0808 콩가공식품사업협동조합

2만여 불자 광화문서 금강경 합송

4월6일 '신행문화 새 지평' 개척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기자간담회

불자들의 전법 의지를 북돋우고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2만여 불자들이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광장에서 〈금강경〉을 독송한다.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지난 19일 전법회관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기존의 모금 캠페인이었던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을 '국태민안 기원하는 전국 불자 금강경 독송 정진'으로 확대해 신행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로 해 주목된다.

'국태민안 기원하는 전국 불자 금강경 독송 정진'은 지난해 이기흥 회장이 순례했던 300개 사찰을 중심으로 2만여 명의 불자들이 집결해 종단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을 독송하며 세상의 평화를 기원하는 자리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종단 집행부와 전국 25개 교구본·말사 스님, 중앙신도회 임원진과 포교사, 불자 정치인과 주요 정·관계 인사 등이 오는 4월6일 오후4시 광화문광장에 운집해 장관을 연출할 예정이다.

금강경 독송 정진은 탈종교화와 불자 감소의 현실을 맞아 불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잡고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기흥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아 불자 300만명 감소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한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사회에 능동적으로 알리면서 신뢰받는 불자가 되자는 취지에서 금강경 독송 정진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나눔문화의 확산을 통한 불자들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행복바라미 기간 동안 전국에 모금소 500여 개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신도회는 '1인 1불자 만들기', '신도등록 사업의 확대' 등을 통해 금년 신도조직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1년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제4교구본사 월정사,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체육인불자연합회 등과 협력해 전 세계에 한국불교를 널리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국민을 위해서"…"초발심으로"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19일과 20일 잇따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했다. 문 전 대표(사진 오른쪽)와 반 전 총장(왼쪽)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총무원장 스님은 "초발심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문 전 대표 사진은 2015년 본지 자료사진) ▶관련기사 3면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포교 열심히 하는 스님 양성하겠다"

교육원장 현응스님 신년간담회
'설법과 토론' 필수과목 지정
첫 '학인 설법대회' 준비
'전법사' 제도도입 뜻도 밝혀

조계종 승가교육에도 전법과 교화가 강조된다. 교육원장 현응스님은 지난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원은 기본교육기관에 전법포교와 사찰경영능력을 기르는 과목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또 사찰 주지와 종단 주요 소임을 맡기 위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2급, 3급 승가고시 논술에 전법포교 내용을 반영하고, 면접에선 설법능력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승가교육과정에 전법포교 역량을 강조하게 된 배경에 대해 교육원장 스님은 "지난 7년간 진행해 온 교육불사를 진행해온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교육기관에 표준교육과정을 도입한 후 학인 스님들은 현대화된 불교교육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열린 학인 토론대회에서는 주어진 주제에 대해 불교교리를 바탕으로 상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스님은 "토론하는 학인 스님들을 보며 대중에게 법을 전하는데 무리가 없음을 알게 됐다"며 "조금 미흡하더라도 대중과 토론하면서 불교관이 심화되고, 포교 또한 수행의 방편으로 생각돼 관련 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기본교육기관은 '설법과 토론'을 필수교과로 지정하고 '종무행정' 등을 선택해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 '설법과 토론' 수업 진행에 대해서는 유대인 교육방법으로 알려진 '하부르타 교육법'을 예로 들어 두 명이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는 등 불교적 주제를 두고 세미나식 수업을 하는 것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제1회 조계종 학인 설법대회'도 개최한다. 설법대회는 기존에 스님 설법 위주의 일방적인 법회 방식을 벗어나, 젊은 학인 스님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아 새롭게 법회를 운영하고 포교하는 방편을 찾아가는 자리다. 학인 스님들에게도 설법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칭 '전법사' 제도도입도 준비하고 있다. 일정한 요건과 자격을 갖춘 스님에 한해 '전법사' 자격을 줘 포교현장에서 활약하도록 지지하겠다는 취지다.

뿐만 아니라 행자교육과 전문교육, 연수교육도 보다 세밀해진다. 행자교육의 경우 목표를 행자기간 6개월 동안 승가와 사찰문화에 익숙해지고, 불심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출가상담 인력을 충원해 행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고, 일상 입문교육을 통해 사찰에서 안정감을 찾고 불심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전문교육기관인 사찰승가대학원의 교육과정 정착과 내실화를 위해 '학점제'를 전면 시행하고 교수 스님의 강의계획서 작성과 배포도 의무화한다. 연간 5000명의 스님이 이수하는 연수교육에서도 사회와 소통하고 전법포교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해 온 근대한국불교 대표문헌을 선별해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도 5년만에 성과를 처음으로 공개해 9월 봉정식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교육원장 현응스님은 "올해 슬로건을 '전법포교 역량을 향상시키는 승가교육'으로 삼은 것은 교육원이 하는 사업은 스님들의 구세대비 원력 실현에 귀착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부처님께서 부촉하신 전법포교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승가교육 불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기금모연
• ARS모연 : 060-700-1027
• 문자모연 : #25401로 문자메시지 전송
(문자메시지 창에 사찰명 또는 개인이름 입력)
• 모연계좌 : 농협 301-0160-9713-71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 모연문의 : 02-730-6690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

현진스님의 산방한담

고맙다, 수고했다, 잘했다

어느 신년 인사모임에 갔더니 참석자들이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격려하기 위해 수화로 '사랑합니다'는 표현을 하여서 무척 인상 깊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가장 칭찬받아야 할 대상은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걸 잊고 살았다.

이번 달 암자순례 법회에서 오른손을 각자의 심장 위치에 올려 보라고 주문했다. 그리고는 심장의 박동소리를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심장이 쉼 없이 호흡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심장아, 멈추지 않고 뛰어 주어서 참 고맙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열심히 동행해준 육체에게 토닥토닥 인사하는 시간이 때로는 필요하다.

살아오는 동안 개인적으로 성공한 일도 있고 실패한 일도 있겠지만 가장 잘 한 일은 죽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 있는 일'이다. 살아있기 때문에 서로 마주하며 안부를 전하고 소식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목조목 따지지 말고 이 세상의 부재(不在)시절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야 한다.

살아있기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는 것이다. 저 공동묘지의 주인공이 되면 추워도 말할 수 없고 더워도 표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업적이나 평가와 상관없이 모두가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운문사 법당에는 악착보살이 조각되어 있어서 눈여겨보았더니 정토를 향해서 사력을 다해 줄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다.

이 풍진 세상에서 지금껏 희망과 열정으로 악착 같이 살아온 인생이므로 너나 할 것 없이 충분히 축하받을 만하다. 이런 이유로 정월 설날이 되면 친구들에게 아직 있어주어서 고맙고, 생존하느라 수고했고, 어떤 일이든 잘했다는 축사를 보낸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올해의 신행주제를 '3다'운동으로 정하고 새해 첫날 발표했다. 여기서의 3다는 '고맙다, 수고했다, 잘했다'를 줄인 것이다. 올해는 이 주제를 가지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어디서나 강조할 계획이다.

청주 마야사 주지

희망찬 정유년 새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봉 금산사 오층석탑(보물 제25호) 사리친견 법회 축

석가여래사리

정광여래사리

● 정광여래(연등불)사리 2과
● 정광여래 분 신 사 리 1과
● 석가여래 진 신 사 리 5과

기간 : 불기2561(2017)년
1월 28일 ~ 7월 22일
장소 : 금산사 대적광전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

문의 (063) 548-4440~2